

보 도 해 명 자 료

('17.9.11)

수신 :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

제목 : “美 2322개 · 韓 41개...당근 없이 ‘제조업 회귀’ 없다” (9.11, 아시아경제)

1. 기사내용

- 미국 제조업 회귀(리쇼어링) 기업이 2,322개인 반면, 한국은 41개에 불과
 - 특히, 지난해 리쇼어링을 통해 미국 일자리 7만7000여개가 창출

2. 동 기사에 대한 산업부 입장

- 미국 리쇼어링 기업수와 창출된 일자리 수가 사실과 다름
 - 동 기사는 ‘리쇼어링 Initiative’의 ‘New Reshoring&FDI’을 인용한 것으로 ‘리쇼어링’뿐만 아니라 ‘외투기업’을 포함하였음
 - 또한, 미국·일본의 ‘리쇼어링’과 한국의 ‘국내복귀(유턴)’의 개념은 상이
 - 선진국의 리쇼어링은 ‘유턴’과는 달리 해외법인 청산·축소를 전제로 하지 않아 더욱 광범위한 개념임
 - 선진국은 유형에 관계없이(유턴기업 혹은 자국기업) 조세감면 등 단일 지원제도를 운영 중이나, 한국에서만 유턴기업만을 위한 차별적인 지원제도를 운영중
 - 한편, 산업부는 대기업 유턴 가능성을 사전파악하는 차원에서 실무적으로 삼성전자 베트남 공장을 방문조사한 것이며, 이를 토대로 유턴활성화 등을 포함한 ‘투자유치제도 종합개편방안’을 금년 중 마련할 예정
- ※ 문의 : 산업통상자원부 해외투자과 전병근 과장 (044-203-4090)
해외투자과 윤제민 사무관 (044-203-4093)